

# 국운 융성 기원하던 고려國刹



영취산의 얼골 명선스님

## 수군義僧 열 기리는 박물관 건립 물두

지금으로부터 40여년 전, 흥국사를 참배하고 가는 한 젊은 스님을 향해 발일을 하면 노인이 한 말씀 건넸다.

"문고리는 잡으셨소?"

"예—"

"삼악도는 면하시겠구려."

그 후로 그 젊은 스님은 회암사 주지와 조계종 종회의원을 거쳐 1985년에 다시 흥국사를 찾았고 지금까지 절을 지키고 있다. 그 스님이 바로 흥국사 회주 명선 스님이다. 지금은 수군 의승의 얼을 기리는 박물관을 세우는 일에 몰두하고 계신다.

무릇 지극한 아름다움은 '가꾸지 않음'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무위(無爲)라고 하여, 노장(老莊)에서는 그것을 '도(道)'라 일컫고, 선가(禪家)에서는 '니르바나(涅槃)'의 의미로도 씁니다.

그런데 '가꾸지 않음' 이아말로 '큰 가꿈'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늘의 돌봄이 곧 그것이니, 바람 불면 흔들리고 비오면 맞으며, 피어나고 사라지고 짐드는 만물의 생주이멸(生住異滅)이 다 그로 말미암음입니다. 여수행 기차에 몸을 싣고 흥국사 찾아가는 길, 차창을 스치며 지나가는 풍경들이 일깨워준 생명의 실상입니다.

아무렇게나 피어난 듯한 꽃들, 푸른 비늘을 번득이는 나무들, 모두 하늘의 보살핌에 편안히 물 맡긴 표정입니다. 부처의 얼굴입니다. 얼마나 더 살아야 저런 표정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득합니다.



대웅전 문고리. 대웅전을 조성한 41분 스님들의 원력이 담겨있어, 집기만 해도 삼악도를 면한다는 얘기가 전해온다.

여수, 하면 오동도를 떠올리는 사람에게 흥국사는 생소한 이름일 것입니다. 요즘은 여수 공단의 살풍경에 가려서 더욱 멀게 느껴지는 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흥국사는 정감 넘치는 옛절의 질박함을 골고 간직한 절입니다. 사람이 한 입도 그 정성이 지극하

면 '무위(無爲)의 미(美)'에 도달할 수 있을 줄 보여 주는 그런 절입니다.

흥국사는 공장 일주문을 향해 성큼성큼 들어갈 절이 아닙니다. 가람을 감싸듯 둘러 내린 두 줄기의 계곡이 합쳐지는 초입의 개울을 가로지르는 무지개다리(虹霓橋, 보물



조선통기에 조성된 흥국사 대웅전(보물 제366호) 내부. 대체로운 공포 조각과 처음 그대로의 단청이 화려하면서도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 영취산 흥국사

563화를 그냥 스캔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바라봄만으로 아무만짐을 대신해 줄 정도로, 쌓은 이의 정성이 몸으로 느껴지는 대리입니다.

무지개다리를 지나 일주문만 지나도 가람의 분위기는 이색해집니다. 만약 이른 봄이라면 동백꽃 붉은 등불이 길을 밝혀 줄 것이고, 요즘 같은 때라면 짙푸른 녹음이 세상사 어지럼증을 달래 줄 것입니다.

흥국사(興國寺)는 이름 그대로 나라의 흥

세속적 가치와 부딪치지 않을 수 있는지를 잘 보여 줍니다. 절에 전해오는 얘기 한 토막 들었습니다.

임진왜란의 전화에 휘말린 남해안. 농어민들이 농토와 바다를 등지고 풀쭉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구의 노략질이 가장 큰 원인이었지만, 실로 그들의 등을 떠민 것은 무력한 나라였을지도 모릅니다.

임진왜란의 영웅 이순신은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위기감을 느낍니다. 급기야 이순

## 보조국사 창건...몽고·왜 침입때 수난 無私殿 편액 자비·평등 정신 발현

성을 기원하기 위해 지은 고려의 국찰입니다. 고려 명종 25년(1195)에 보조 국사가 창건된 후, 몽고군의 침략으로 폐허가 된 것을 조선 명종 14년(1559)년 범수 스님이 중창했으나, 임진왜란 때 모두 불타 인조 2년(1624) 계복 스님이 중건하여 오늘에 이릅니다. 역설적이게도 나라의 흥성을 기원한 사찰이 나라가 위난에 처했을 때마다 곤경에 빠졌으니,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잠시 난감해집니다. 그러나 바로 그 역사의 종말 속에, 위정자에 강요당한 충성이 아닌 호국이 있었으니, 부처님의 자비가 어떻게

신은 흥국사를 찾습니다. 그 무렵의 흥국사는 700여 수군 의승의 주둔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순신은 전술 아닌 전술 조언을 들었습니다.

"힘으로 백성을 다스리려 해서는 안된다. 덕으로써 어버이와 형제, 자식을 대하듯 하라. 그것이 부처님의 평등정신이다. 백성과 고막을 함께하라."

그 동안 우리는 호국 불교를 국가 이데올로기에 대한 맹목적 옹호와 다름없는 좁은 의미로 해석해 왔습니다. 당대의 고통을 온 몸으로 받아들이는 동체대비의 실현, 진정



보물 제578호로 조선 숙종19년(1693)에 제작된 후불탱화(부분). 원만한 형태와 고상한 색채가 조화를 이룬 걸작으로 평가받는다.

한 호국 불교는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임란 후에도 흥국사의 수군 승병은 300명으로 조직되어 국력 쇠퇴기의 민중과 함께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의병 승군의 정신은 고스란히 가람의 중건으로 이어집니다. 대웅전의 불상에서 '조선의 얼골'을 만날 수 있는 것도, 당대 민중들의 피안 화구를 끌어안은 모습입니다.

흔히 명부전이나 지장전이라 불리는 건물에 '무사전(無私殿)'이란 편액을 건 것도 누구에게나 공평무사한 자비 평등 정신의 발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흥국사의 중심 불전인 대웅전(보물 제 396호)은 이러한 정신이 집약된 곳입니다. 특히 공포의 건틀 안 출목 장식이 모두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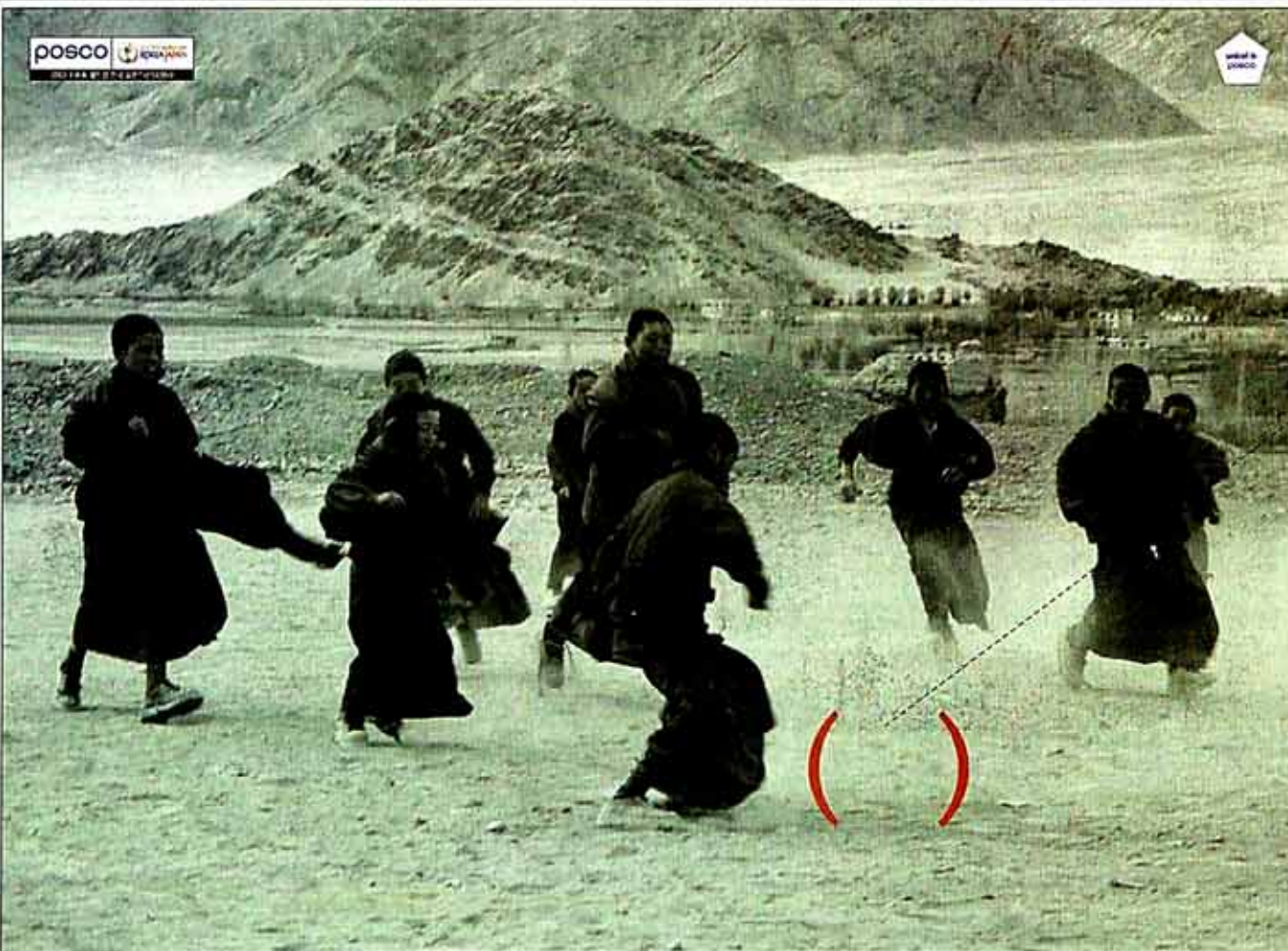
른 점도 이채로운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임진왜란 후 41명의 스님들이 1000일을 기약하고 손수 목수 일을 하며 기도의 자세로 대웅전을 짓기로 했습니다. 각기 41개의 공포를 맡았고 지극한 정성으로 다양한 형태의 공포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이들 41비구의 원력은 마침내 문고리에서 클라 이맥스를 이룹니다.

'이 문고리를 잡은 모든 중생 삼악도를 면하기를...' 문이 비록 열리기 위해 존재한다 해도, 다가가 열지 않는 자에게는 벽과 다를 바 없습니다.

문고리 잡기, '선근(善根) 심기'입니다.

글=윤재학 기자 사진=박보하(사진가)



## 포스코와 유니세프가 이 자리를 채웁니다

지금도 세상 어느 곳

아이들이 뛰노는 자리에는 돌봄 많은 실태래,

찌그러진 광둥, 바람빠진 낮은 지붕이 있을지 모릅니다.

모양이야 어떻든 그 자리는 바로 희망의 자리 -

축구는 아이들을 또다른 세상과 만나게 해주는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포스코 유니세프가 함께 세계 환경지대 오지 어린이들에게 축구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유니세프가 함께, 북한 어린이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세계 곳곳에 축구장을 내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POSCO UNICEF 함께 세상을 움직입니다. www.posco.or.kr